

1999 가을호

스물 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http://childcancer.welfare.net>

위의 사진은 가족캠프 중 아픈 형제를 둔 아이들이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종이비행기에 접어 날리는 모습이다. 아픈 형제로 인해 제대로 여행을 다니지 못했던 아이들이 오랜만에 자연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무척이나 보기 좋다.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경북대학교 병원
소아과장 이 건 수

만 옛날, 인류가 삶을 시작한 이후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전기, 전화, 교통, 인터넷 등 우리들의 생활은 더 편하고 더 빠르고 더 좋게 발전을 계속하여 지구의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시간마다 위성을 타고 텔레비전을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옛날에는 가장(家長)이 사냥도 하고 움막도 짓고 후손에게 생활수단도 가르치고 하던 것이 날이 갈수록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집단을 이루어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직업이 세분화되어 각자의 역할로 나누어졌고 사람들은 생활을 영위할 수단으로 교육을 받아 직업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이 양(陽)이 있으면 음(陰)이 있듯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정은 더 각박해지고 기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빨리 가다가도 앞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화를 내며 싸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는 차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자동차 후면 유리에 붙여 남이 보게 하는 캠페인을 벌렸는데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는 앞 유리에 붙여 자신이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했었습니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인 생물학적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나와 우리만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격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 앞서 나부터 반성해야 하고, 차 창문을 열고 담뱃재를 터는 사람은 '우리 나라는 왜 이리 와이셔츠가 빨리 더러워지는가'에 대해 불평하지 않아야 되며, 자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파업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이(service)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서 상대의 고통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복잡하게 분화된 현실사회에서는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밝은 미래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운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자신 또는 가족 중에 백혈병이나 암을 진단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되느냐? 나는 이제까지 잘못된 일도 없는데..등등 분노와 원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환자와 가족 모두 병을 싸워 이겨낼 마음의 준비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치료 중에도 수많은 난관과 고통을 겪게 되어도 잘 이겨 나가도록 서로가 힘을 북돋아주어야 합니다.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같이 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고 환자들도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깨끗하게 병과 싸워 이기는 밝은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완치 후,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밝아오는 2000년을 가슴 벅차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완치의 그 날을 위해 파이팅!

후원회로 온 반가운 편지

이번에 몰아친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별 피해는 없으시며 가족 모두 건강하십니까? 저는 여러 어르신들의 염려 덕분에 건강을 되찾고 있는 "은주"입니다. 그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학교 선생님, 친구들과 선후배님들, 엄마, 아빠의 친구분들, 친척분들께 많은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지만 은주는 빨리 완쾌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꼭 일어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만 왜 이렇게 나쁜 병에 걸렸는가 하고 원망도 했지만 이번 수해처럼, 화성 씨랜드 사고처럼 엉겁결에 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 경우는 그래도 복받은 경우라 생각합니다. 저는 2차 항암치료를 거뜰히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아직까지 저에게 맞는 골수를 찾지 못하고 있지만 참고 이겨낼 것입니다.

아빠는 문산으로 수해복구봉사를 떠났습니다. 우리 집에는 동생이 둘인데 공주병에 걸린 11살 보미와 19개월 귀염둥이 준영이가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제가 아파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철모르는 아기 준영이는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며 제멋대로 하려고만 합니다. 엄마 혼자서 세 아이들을 돌보기가 쉽지 않을텐데 아빠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이른 아침 아파트 부녀회를 따라 문산으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자 어려우실 텐데도 도와주신 많은 분들, 여의도성모병원 엔젤병동에 나와 같은 병에 걸린 많은 어린이들, 그 곳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수녀님, 자원봉사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제가 할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커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봉사자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도 저를 필요해서 데려가시려고 하시지만 하늘보다 이 세상에서 제가 할 일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그냥 이 세상에 두고 가시리라 믿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완쾌하면 찾아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999년 8월 7일

병마와 싸우는 은주 올림

♥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편지를 보낸 이은주는 11살 여자아이입니다.

은주는 99년 5월말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현재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식사관리 I - 치료에 따른 부작용시 대처방법

1. 입안에 통증이 있거나 삼키지 못할 때

- ① 씹고 삼키기 쉬운 부드럽고 연한 식품을 선택한다.
예)밀크셰이크, 바나나, 사과소스, 복숭아, 배, 수박, 과일통조림, 미숫가루, 으깬 감자, 죽, 미음, 수프, 우유, 요플레, 치즈, 계란찜, 수란, 연두부, 젤러트, 푸딩, 야채으깬, 고기다짐
- ② 입안을 자극하는 음식은 피한다.
예)오렌지, 자몽, 귤과 같이 신 과일
마른 오징어나 생야채 등의 거친 음식
고추나 후추가 많이 들어간 짜고 매운 음식
- ③ 모든 음식은 푹 익혀서 부드럽게 조리한다.
- ④ 믹서를 이용하여 음식을 으깨서 준다.
- ⑤ 입안이 쓰리면 빨대를 이용한다.
- ⑥ 뜨거운 음식은 약해진 입과 목을 자극하므로 차게 하거나 되도록 식혀서 먹는다.
- ⑦ 음식찌꺼기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입안을 자주 헹구어 준다.

2. 메스꺼움을 느낄 때

- ① 식사는 적은 양으로 천천히 자주 먹는다.
- ② 식사시에는 너무 많은 국물이나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 ③ 음식이나 음료수는 가능한 차게 해서 먹는다.
- ④ 식사 후에는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잠시 쉬도록 한다.
- ⑤ 음식냄새가 나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쾌적한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
- ⑥ 너무 기름지거나(튀긴 음식) 단 음식(사탕, 꿀 등)은 피한다.

3. 구토

- ① 머리를 약간 높은 상태로 쉬게 하며, 위치를 자주 바꿔주고, 옷 등에 의해 몸이 조이지 않도록 느슨하게 한다.
- ② 방은 환기시켜 불쾌한 냄새나 소리를 제거하고 옷과 침대 커버는 자주 갈아 준다.
- ③ 축축한 수건으로 얼굴을 시원하게 닦아주고, 입안을 찬물이나 구강세정제로 헹구어 내거나 물수건으로 입과 혀를 닦아준다.
- ④ 구토가 심하면 먹지 않는다.
구토가 멈추면 10분마다 물을 1스푼씩 먹으며 차츰 늘려가고, 적응이 되면 우유, 요구르트, 주스, 고단백음료 등을 조금씩 추가한다.

4. 입맛의 변화

- ① 입맛이 변하여 단맛엔 둔감해지고, 고기 맛에 민감해질 수도 있다.
예) 고기 맛이 싫으면 생선, 계란, 닭, 두부, 유제품 등으로 대체한다. 육류냄새를 감소시키기 위해 과즙, 와인, 드레싱, 소스 등을 충분히 사용한다. 금속 식기보다는 플라스틱식기나 수저를 이용하면 쓴맛이 덜하다.
- ② 입맛을 돋구기 위해 탄산음료나 차, 과일 등을 먼저 조금 먹는다.
- ③ 일단 불쾌한 맛을 느낀 음식은 당분간 먹이지 않는다.
- ④ 식전에 입안을 깨끗이 헹군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급식영양과 위경애 영양사

5. 변비가 있을 때

음식물이나 수분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운동이 부족할 경우 그리고 약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변비가 생길 수 있다.

- 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아침식전이나 자기 전에 차가운 물을 먹으면 장운동에 도움을 준다.
- ② 잡곡(현미, 콩)과 야채, 과일을 충분히 먹는다.
- ③ 운동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한다.
누워만 있는 경우라도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준다.
- ④ 가능한 식사량을 늘리도록 한다.

6. 설사가 심할 때

설사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 무기질, 수분부족으로 탈수증세가 나타나고 감염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이다.

- ① 수분섭취를 위해 물이나 음료를 충분히 마신다.
- ② 급성설사 시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미음이나 음료 등을 섭취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 ③ 음식은 부드럽게 조리하여 소량씩 자주 먹는다.
- ④ 소금과 칼륨을 많이 포함하면서도 자극적이지 않는 음식(바나나, 사과즙, 삶은 감자 등)을 먹도록 한다.
- ⑤ 양념이 강한 음식이나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 홍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은 먹지 않도록 한다.
- ⑥ 음식은 너무 차게 먹지 않는다.
- ⑦ 소화되기 어려운 생야채나 기름진 음식은 피한다.

7. 격리식

항암치료로 인해 백혈구수가 감소한 경우는 감염에 대해 주의를 해야하며 음식 중의 박테리아균 등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힌 음식을 먹어야 한다.

- ①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② 조리에서 사용되는 기구, 식기, 수저는 반드시 소독한다.
- ③ 모든 음식은 반드시 익혀 먹는다.
제한식품 - 치즈, 생야채, 생과일,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허용식품 - 통조림, 두유, 캔주스 멸균우유, 분유, 청량음료 등
- ④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먹는다.
- ⑤ 시판되는 간식류(과자, 빵 등)는 오븐에 굽거나 찌거나 전자렌지에 데워 먹는다.





예쁜 꿈을 접어요!

춘림씨를 알게 된 것은 춘림씨가 여름캠프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였다. 춘림씨는 그동안의 치료로 인해 안대를 착용해야하고, 치아가 상했음에도 늘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손재주가 어찌나 좋던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 접기는 금방 똑딱... 춘림씨의 그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 인터뷰를 요청했다.

KCLF 춘림씨가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춘 립 턱밑에 사탕을 문 것처럼 조그맣게 났던 것이 계속 부어 올랐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신 부모님들은 우선 저를 동네병원에 데리고 진찰을 받게 하셨어요. 동네병원에서는 볼거리라면서 주사를 놔 주길래 부모님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덩어리도 커지고 눈까지 튀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가보니 암인 것 같다며 의료진들이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횡문근육종이라는 진단명을 받게 됐지요.

KCLF 춘림씨는 87년부터 89년까지 약 2년 반정도의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과정을 겪었고 치료를 마치고 후유증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춘 립 저는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만 받았지요. 저는 이식을 하거나 치료를 마치고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치료과정은 수월하였던 편인 것 같아요. 약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었지요. 그러나,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안이 다 헐어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구토증세도 심해 먹은 것 중에 반을 구토를 해버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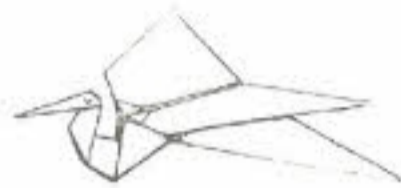
한편 저는 치료로 인해 부작용이 심하게 남은 편이죠. 눈의 경우 방사선 치료로 인해 눈물샘이 말라 각막이 상했고, 치아의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인해 침샘의 분비가 불균형하게 돼 하루아침에 씩을 수도 있다던데 제가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치료를 마친 뒤 저는 계속해서 안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왔어요. 특수 렌즈를 맞췄는데 불편해서 사용을 안하고, 인공눈물을 안구에 넣으면서 안대를 착용하고 있

어요. 치아의 경우 최근 들어 치료를 시작했는데 다행히 뿌리와 신경들이 살아있어 신경치료를 마치면 인공치아를 씌울 예정이에요.

KCLF 춘림씨의 경우 약 3년간 휴학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치료를 마친 이후 학교생활을 어땠어요?

춘 립 처음 진단을 받았을 당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학교를 가지 않으면 집에서 축 처져 있게 된다면 학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열이 40°까지 올라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휴학하게 되었어요. 치료를 마치고 복학을 해 학교에 가니 동네에서 저에게 "언니"라며 부르던 동네 꼬마 아이들이 저와 같은 반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서먹서먹 하더라구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아이들을 멀리하고 피했지요. 아깝어도 자존심만은 남아 있었나봐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 아이들과 동화되기가 영 힘들었어요. 아마 그 아이들도 저를 "언니"라고 불러야 할지 "야"라고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집이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저도 전학을 가게 되었고 처음 전학간 날이 새학기로 다른 아이들도 서로 다 모르는 처지여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대하기가 편해졌어요. 저의 경우 전학으로 학교생활이 많이 쉬워졌지요. 그 때 친구들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지내요.

KCLF 춘림씨가 학교에 복학했을 때가 외모에 가장 민감한 사춘기 시절이었는데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나요?



송 춘 림

1975년 생

1987년 횡문근육종 진단

1989년 치료종결

현 재 종이접기 가게 운영을 계획 중

춘 림 머리가 빠져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여자아이들은 괜찮았는데 남자아이들은 많이 놀렸어요. 그러나, 저는 남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도 나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태연한 척 하면서 넘어갔어요. 저는 이런 부작용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난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늘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제 성격 탓인 거 같아요. 요즘도 안대를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표현은 하지 않을 뿐 "왜 안대를 할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저를 상대하다보면 저를 보통 사람보다 더 보통사람으로 대하지요. 오히려 안대를 하고 다니는 것이 저를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외모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외모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를 짧게 잘라보거나 학교를 졸업하고는 화장하는 법을 좀 배우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저 역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니 술이 적은 게 덜 표시나더라구요. 화장도 처음에는 눈 때문에 하지 않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형부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실업계 디자인과를 나온 탓인지 춘림씨의 화장술은 칭찬을 해줄만하다.)

KCLF 취업을 했다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취업을 하는 데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 해줄 말은 없나요?

춘 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일반 사무직을 지원했으나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해도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아마도 외모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는 눈 때문이라며 직접적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하기로 생각했어요. 아팠을 때 주위에서 받았던 돈을 모아둔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배운 게 꽃꽂이였어요.

배운지 약 1년 후 꽃꽂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취직을 해 주문을 받으면 꽃을 직접 구입해 꽃을 꽂는 일을 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조카들을 위해 배우기 시작한 종이 접기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종이 접기 중급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고급과정 정도가 되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게 되지요. 저처럼 부작용이 심해 외모로 걱정을 하시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만약 외모로 인해 사무직을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꽃꽂이나 종이 접기, 제빵 등의 기술을 배워 자영업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돼요.

KCLF 앞으로 춘림씨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춘 림 계속해서 종이 접기를 배울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게를 내서 제가 만든 소품도 팔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병원에 자원봉사를 나가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게 종이 접기 조금씩 가르칠 예정이죠. 저를 만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가족캠프에서의 모습-

자신 여름은 끈끈(?)했다.

대학 3년만에 처음 하는 사회봉사. 무얼 할까? 남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다는 국립중앙도서관? 여름동안 시원하긴 하겠지만 왠지 책하고는 거리가 먼 나이기에 관심 밖이었다. 흔히 생각하는 양로원? 나는 애교가 없고 무뚝뚝해서 어렵고, 고아원? 아이들과 별로 친하지 않아서 안되고, 결국 가장 봉사답다고 생각되는 '백혈병어린이후원회'를 선택하게 되었다.

막상 백혈병어린이후원회를 봉사기관으로 정했으면서도 백혈병 어린이들이라는 무언가 모를 약간의 두려움이 느껴졌다. TV에서만 보아오던 머리카락이 빠진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애들을 돌봐준다는 건 선뜻 자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후원회의 일들 중에서도 후원자와 홈페이지 관리라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다. 백혈병 어린이들을 멀리서 보면서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했는데 후원자 관리라는 것이 아주 단순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보가 나오면 우편발송을 하기 위해 봉투에 풀칠을 하는 것이었다.

봉사첫날, 그 주는 일년에 몇 안되는 회보가 나오는 시기라 계속 풀칠 작업을 해야 했다. 머리 쓰고 하는 것보다 단순한 작업이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직원분들이 잘 한다고 해서 더 신이나 빨리빨리 하게 되었다. 갑자기 무리를 했는지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팔이 아팠다. 다음날은 '좀 천천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둘째날, 내가 풀칠을 잘한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들 알고 있었음에도 또 풀칠을 잘 한다고 말하신다. 어쩔 수 없이 또 빨리빨리 해야했다.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셋째날,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은 데도 방안에 가득차 있는 회보가 줄어들질 않는다.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걸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또 빨리빨리 한다.

이렇게 풀칠만 하다보니 봉사라는 생각을 잠시 잊고 있었다. '이게 무슨 봉사야 하는 생각이 순간 스치는 듯 하다가 다시 생각을 고쳐하게

자원봉사자 최은영
한양대학교 수학과 재학 중



된다. '후원회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일들을 못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나름대로 아주 많은 의미를 부여해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야말로 봉사자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드디어 회보발송이 끝! 새로운 일을 하게된다. 또 가슴이 매우 설렌다. 이제는 정말로 후원자 관리라는 일이다. 후원자나 부모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의 주소를 입력하는 일이었다. 같은 것으로 봉사를 했던 분은 나보다 봉사가 일직 끝나서 회보발송만 하다가 끝났는데, 난 컴퓨터 앞에 앉아보게 되다니, 신났다.

처음엔 새로운 일이 재미있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입력작업을 하는 동안 전국 각 지역에 있는 후원자들의 주소를 보면서 '우리동네 혹시 없나?', '어느 지역이 제일 많나?' 그런 것을 보면서 혼자 심심하지 않게 일을 하곤 했다. 그러다가 후원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천사백 회원이라고 불리는 후원자들은 천사같은 마음으로 백혈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매월 1400원씩 후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알게 되었다.

후원자를 관리하는 일을 얼마 하지 못하고, 봉사는 끝나게 되었다. 정말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봉사기간 해야할 일들을 뒤로 미뤄둔 것 때문에 시원하기도 했고 이제 막 어느 정도 백혈병어린이후원회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데 끝나버려서 섭섭하기도 했다.

짧은 기간의 봉사활동이었지만 조금은 변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백혈병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후원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을 돌봐주는 천사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가져본다. 봉사를 다녀온 날이면 집에 돌아와서 언니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곤 했는데 그런 나에게 언니가 많이 착해졌다고 말을 하였다. 그동안은 착하지 않았다는 소리같아 기분이 묘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천사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랑이 모이는 곳

가족캠프 개최

후원회는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가평에 있는 허수아비마을에서 가족캠프를 개최하였다. 총 15가족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는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레크레이션과 환아 및 부모, 형제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이번 캠프는 서로 다른 병원에서 참가한 가족들이 서로 치료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친목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 아픈 형제로 인해 외로움을 느꼈을 형제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소아암 치료를 마치고 성인이 된 완치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었고,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의료진이 함께 교육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주)아피아에서는 아동용 캠프티셔츠를 후원해 주었다.



마이클 잭슨과의 즐거운 식사

세계적인 팝가수 마이클 잭슨은 지난 6월 23일 콘서트를 위한 한국 방문 일정 중 소아암 어린이 15명을 초청해 베니건스 도곡점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평소 어린이들을 무척 아끼는 것으로 잘 알려진 마이클 잭슨은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네준 꽃다발을 받은 뒤 어린이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은 TV와 비디오, 에어컨 등을 후원회와 제일생명의 집(지

방 환아 숙박시설)에서 사용하도록 기증하였다. 한편 베니건스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식사와 기념품, 이동을 위한 차량을 제공해주었다.



둘리와 함께 모험을!!

(주)둘리나라에서는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둘리 인형극 '둘리의 쥬라기 대모험'을 공연 중 7월 28일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호암아트홀로 초대해 인형극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게 했다.

관련소식

병원학교 처음으로 문을 열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소아진료부원장 최 용)은 병원 7층에 병원학교를 마련하고 지난 7월 15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둘리의 김수정 작가가 직접 미술수업을 진행하였고, 특히 영부인인 이희호 여사께서 직접 방문해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병원학교는 국내 최초의 병원학교로 컴퓨터를 이용한 CD롬 학습의 진행은 물론 미술, 컴퓨터 등의 다양한 특기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후원회에서는 병원학교가 개소되기 이전부터 '푸른우리교실'을 열고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컴퓨터교육과 아동집단활동프로그램 등을 지도해온 바 있다. 앞으로 병원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장기간 치료를 받는 소아암 어린이들이 병원학교에서의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소책자 배부

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실시된 캠프에서 사용하기 위해 캠프 북 2권을 발간하였다. 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여분을 필요한 아동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1) 형제가 암에 걸렸을 때

대 상: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형제를 둔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내 용: 암에 걸린 형제를 둔 소아암 어린이들의 형제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과 여러 궁금증의 해결이 제시된 책



2) 이럴뎐? 이렇게!

대 상: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및 청소년

내 용: 소아암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일들과 느낌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법과 그와 관련된 활동과 대처방법을 제시하였음. 또한 이미 치료를 마친 완치자들이 당시의 느낌을 적어놓아 치료당시의 느낌을 공유하도록 하였음.



* 책자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문의 및 신청 :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02. 766-7671)

토막소식

1. 영진약품에서 후원회에 인트라리피드 780개를 기증해 후원회는 각 병원과 새빛누리회에 모두 무료기증하였다.
2.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회장 이대열)에서는 4월 동아아라톤 '1m 1원'을 통해 모금된 1,200만원을 후원회에 전달해 후원회에서는 조은정, 문하은, 장지훈 어린이에게 각각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씩 지원하였다.
3.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의 캐릭터 상품인 '도담이'와 '도란이'의 판매수익금 중 500만원을 후원회에 전달해 조혈모아식을 받아야하는 최인규 어린이에게 지원하였다.

꼭 읽어 주세요.

9월 20일자 각종 일간지에 사회복지성금의 유용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본 후원회도 감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그에 대한 지적은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특히 본 기관의 공식명칭은 백혈병어린이후원회로 일간지에 소개된 한국백혈병·소아암연합회는 본 기관과 다른 기관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형제를 위한 신나는 겨울캠프

후원회에서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형제들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겨울캠프를 마련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제들의 소외감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고, 각종 레크레이션과 게임 그리고 설원을 배경으로 신나게 눈썰매를 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캠프안내

- 일자: 1999년 12월 말 예정(변동가능)
 - 대상: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형제를 둔 초등학교 및 중학생
 - 주요프로그램: 형제의 병에 대해 이해하기,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다루기 및 눈썰매 타기
- * 자세한 일정이 나오는 즉시 병원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사무국(☎ 02. 766-7671)

혹시 이제는 머리가 다 자라지 않았나요?

후원회에서 가발을 제공받은 여자어린이들 중 이제 예쁘게 머리카락이 자라나 가발이 필요없는 친구들은 후원회로 보내주세요. 후원회에서는 회수한 가발을 비슷한 머리사이즈를 가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가발 신청을 할 경우 대략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급박한 친구들에게는 후원회에서 깨끗이 세척한 가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는 치료를 받는 동안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가 이제는 가발이 필요없게 된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 후원회로 가발을 보내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 2층 백혈병어린이후원회

제일생명의 집 부모소모임을 아시나요?

제일생명의 집(지방 환아 숙박시설,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소재)에서 소아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해 각종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 사정에 따라 일정에 변경이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정민영 사회복지사 ☎ 02. 766-7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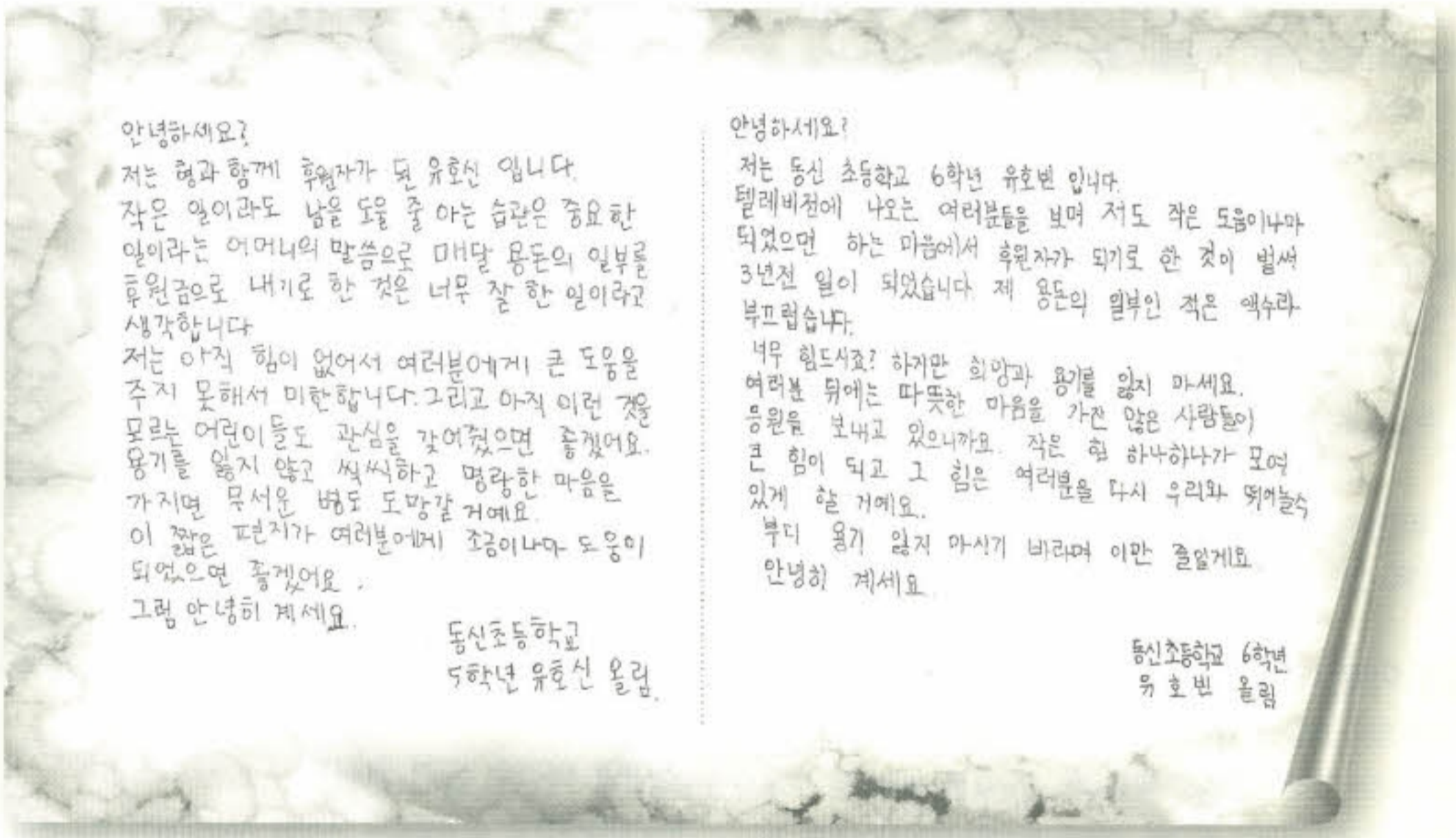
일 정	활 동 내 용
9/30	가을소풍(전쟁기념관)
10/7	식사관리
10/21	취미교실 - 종이 접기
11/11	가정간호
11/18	자녀와의 의사소통
12/9	치료에 관한 질의 및 응답
12/23	송년파티

소아암 어린이 돕기 콘서트

한국방송대학교 총학생회는 소아암 어린이돕기 콘서트와 지구환경살기를 위한 자전거 대중주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13일에 열리게 될 콘서트에서는 유명 음악가들이 나와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음악들을 선사할 것이다. 콘서트 중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이 모금되고 총학생회는 이를 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콘서트 관람료는 무료이니 관심있는 소아암어린이 가족과 후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문의:(02)3668-4784 한국방송대학교 총학생회)

우리는 한뜻형제!

한뜻회원 유희빈, 유희신 형제



안녕하세요?
 저는 형과 함께 후원자가 된 유희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습관은 중요한
 일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으로 매달 용돈의 일부를
 후원금으로 내기로 한 것은 너무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힘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것을
 모르는 어린이들도 관심을 갖게되면 좋겠어요.
 용기를 잃지 않고 씩씩하고 명랑한 마음을
 가지면 무서운 병도 도망갈 거예요.
 이 짧은 편지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동신초등학교
 5학년 유희신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동신 초등학교 6학년 유희빈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보며 저도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후원자가 되기로 한 것이 벌써
 3년전 일이 되었습니다. 제 용돈의 일부인 작은 액수라
 부끄럽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하지만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작은 힘 하나하나가 모여
 큰 힘이 되고 그 힘은 여러분을 다시 우리와 댈어줄
 있게 할 거예요.
 부디 용기 잃지 마시기 바라며 이만 줄일게요.
 안녕히 계세요.

동신초등학교 6학년
 유희빈 올림

◆한뜻후원자 소식

감사드립니다.(새로 가입하신 후원자)

김연주	김운수	김은정	김준영	김현상	김현정	문광일	
송계종	심정은	이세형	이춘녀	전민규	전형준	조병남	홍정아

한뜻 후원자는 소아암어린이들을위한 정서·정보지원사업을 지원하는 후원자입니다.
 금액은 제한 없으며 지로와 자동이체(국민,조흥,기업은행)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후원회 사무국에서 받습니다. (☎ 02 766-7671)

※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한 후원자분들은 15 Page의 '후원자를 위한 Q&A'를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백운동 지원 환자 천사백후원금을 지원 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권준혁(남/3세/Cell clear육종 99. 4. 진단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준혁의 진단명은 Cell Clear육종으로 소아암 중에서도 희귀한 진단명이다. 그러다보니 조혈모이식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준혁의 이식비용은 약 3,000만원을 예상할 정도로 준혁이 가정에게는 부담이 매우 크다. 준혁이 아버지는 98년 가을까지는 유통회사 운전사로 일을 하였으나, 직장을 잃은 지 1년이 되간다. 요즘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벌기 위해 공사현장에 나가고 있지만 준혁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았다. 전세를 빼도 모자라는 이식비용으로 걱정만 하다가 천사백 후원금을 받게된 준혁이 어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준혁이

구대규(남/5세/급성골수성백혈병 99. 1. 진단/아태동대문병원에서 치료 중)

대규는 얼마나 개구쟁인지 병원에서 '꿀통'이라고 불린다. 조혈모이식을 마친 대규를 만나러 병원을 찾았을 때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도 잘 걸고, 대규 어머니와 이야기를 마치고 병원을 떠나려고 할 때도 본 사회복지사의 손을 잡더니 씩 웃으면서 배웅을 할 것임을 표시했다. 그리고는 간호사실까지 배웅을 하고는 멋지게 손을 흔들고 병실로 들어갔다. 병원을 나오면서 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캠프에 갈 대규의 모습은 천사백 후원자들의 사랑의 결실이라 생각해보았다. V를 하며 포즈를 취하는 사진 속의 대규의 모습이 무척이나 귀엽다.

대규

이정환(남/7세/신경모세포종 98. 6. 진단/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

정환이 아버지는 99년 봄 정환이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가출을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정환이는 조혈모 이식까지 받아야만 했다. "조혈모를 채집하기는 했는데 비용 때문에 이식을 계속 진행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정환이 어머니는 이식비용 마련이 엄두도 나지 않자 이식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의료진의 설득과 천사백 후원금 결정소식은

정환이 어머니가 정환이의 이식을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현재 정환이는 앞으로 있을 이식을 위해 입원해 있다. 정환이가 이식을 무사히 마치고 올 가을 코스모스 앞에서 다시 환히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환이

김미정(여/13세/재생불량성빈혈 99. 4. 진단/기톨릭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인테리어 일을 하시던 미정이 아버지도 여느 아버지들처럼 IMF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시게 되었다. 꼬맹이 미정의 막내동생까지 있어 가정형편을 걱정하던 중 미정이가 재생불량성 빈혈까지 진단을 받게 되고 미정이 가족으로서 막막할 수 밖에 없었다. 약물로 치료를 받던 미정이는 다행히 평소 사이가 좋던 동생 미리의 골수가 미정이에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식을 하게 되었다. 이식비용 마련을 고민하던 미정이 어머니는 조심스레 후원회에 문을 두드리셨다. 미정이 어머니는 이식비용을 걱정하시면서도 미정이의 치료기간 동안 얻은 것이 많으며 치료로 인해 몸은 지쳤어도 마음만은 미정이에 대한 희망이 가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곧 이식을 할 미정이와 미리 두자매에게 파이팅을 외친다.

미정

* 지난 호에 소개해드린 백지현 어린이는 급성 골수성백혈병이었음을 정정해드립니다.

천사백운동은 소아암어린이를 돕는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 천사백운동이란?

천사같은 이웃이 되어 매달 1구좌에 천사백원(1,400원)이상을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어린이 골수이식 수술비용으로 후원하는 이웃사랑 운동입니다.

● 골수이식 수술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백혈병을 포함한 소아암 어린이들은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와 골수이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골수이식의 경우 수술비가 약 2,000만원 정도가 들고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 이보다는 비용이 적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거나, 수술 후 처치 등으로 그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아암 어린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 천사백원(1,400원)으로 도움이 되나요?

개인적으로 보면, 비록 1,40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1만 구좌의 많은 후원자가 모이면 1,400만원이 되고, 이 금액은 매월 1-2명의 소아암 어린이들이 새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후원자가 모이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3,845명입니다.

● 천사백운동의 좋은 점은?

후원자들은 후원금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속적으로 후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끝나기 쉬운 수술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도 쉽게 참여해 이웃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천사백운동에 참여하시려면.....

전화로 후원자 등록을 하신 뒤, 1구좌(1,400원) 이상의 후원금을 18개 은행 중 선택하신 은행의 천사백운동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금통에 가득찬 사랑

이동혁 천사백 후원자

주위 분들에게 증권 투자요령을 설명을 해주신 뒤 조금씩 후원금을 명해주시고 계시는 이동혁 후원자님 모으셨다. *막상 후원금을 모으기 은 주위에서 사례를 하겠다는 요청 시작하니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분이 섰도하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다. 그것은 동네분들에게서 사례대신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후원금을 모으는 것이었다. 생각이 떠오른 당장 후원회에 저금통을 요청하고, 주위분에게 증권투자에 대해

설명을 해주신 뒤 조금씩 후원금을 모으셨다. *막상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하니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더군요. *라며 후원금을 모으면서 겪으신 어려움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후원자님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전모으기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또 저금통에 하나둘씩 사랑이 쌓여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훈훈해졌다.



천사백운동 참여 현황 (1999. 8. 31. 현재)

자동이체 참여후원자: 3,649명

자동이체 구좌 수: 11,650구좌

※ 지난 여름호 천사백운동 자동이체 참여후원자수를 3,655명으로 바로 잡습니다.

※ 온라인 일시입금 및 지로구좌는 제외된 현황입니다.

※ 주소 또는 은행, 구좌수가 변경되신 후원자님께서서는 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천사백 후원자들에게 알립니다.

자동이체 계약기간이 끝나 후원금이 이체되지 않은 분들은 새로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분기마다 신규 후원자가 늘어남에도 전체 후원자수는 줄어들고 있으니 번거롭더라도 은행에 직접 가서서 자동이체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99. 6. 1. ~ 99. 8. 31.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경남은행(514-07-0175564 예금주:백혈병어린이후원회→타은행도 동일)

김미숙 이세숙

광주은행(200-107-315315)

김혁 김승현 김아랑 김해랑 박신숙 안병규
조숙현

국민은행(031-01-0414-356)

구범모 권오성 권인희 권춘옥 김경희 김미라
김성열 김원형 김종애 류창수 문혜경 박미화
박선옥 백성자 신상목 윤은경 윤종현 이귀숙
이난희 이상근 이은미 이은수 이정란 임정애
장용석 전창호 정선이 차경자 최대성 홍진기
황민지

기업은행(090-000260-04-022)

김장호 이재성 조임주 (주)진원산업 진승림

농협(029-01-170940)

김전농협 강삼포 곽한상 김미옥 김승휘
김아영 김한걸 박남기 박상택 박성호 박인배
박점숙 박정자 박정화 배근호 안양임 여형준
유영철 이창영 장인수 전정숙 정승만 정정숙
조혜영 최현정 황경엽

대구은행(004-05-179828-001)

서맹수 이상욱 정상호 최종호 최형심

부산은행(070-01-021379-8)

강진묵 송수연 윤성년 이지은 이현정 정현숙

서울은행(16508-2945601)

구향순 김명주 윤상혁 지해순

신한은행(394-01-000694)

권은정 김선래 문홍철 박미선 함금순

외환은행(141-22-00799-6)

권영돈 김현정 손현숙 유부덕 전병화 조정수

제일은행(225-20-385050)

김용희 이미자 이옥자 이점남 진현경

조흥은행(367-01-192434)

김현주 노창희 양정길 오현정 우정선 이도환
이주연 정회진 최영목

주택은행(488401-01-001485)

김설 김상규 김순옥 유남순 이동훈 이영선
이정환 전진환 천상근 최규택

축협(043-11-13275-816)

하나은행(144-121835-00105)

이선영

한미은행(100-59711-251)

김재순

한빛은행(112-04-112571)

*이전 한일은행 계좌는 기존에 신청하신 후원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기택 김낙인 김두섭 김순덕 김영교 김은순
김은주 김의경 김주동 김주혁 김진경 박화실
서경숙 신강희 신지원 신희숙 영창개발 정병임
정인호 정주현 조춘자 진용필 최선숙 하경관

우체국(012989-0037222)

박정렬 방수진 신미남 양승희 이인수

후원자를 위한 Q&A

◆ 후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후원회는 서울시에 등록된 사회단체지만, 법인이 아닌 관계로 원칙적으로는 납부하신 후원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 후원금이 소액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원금을 소득공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2월 15일 전까지 후원회로 연락을 주시면 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회에서는 12월 말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한 캠프를 개최하게 되어 캠프기간내에는 영수증 발급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천사백회원의 경우 자동이체를 해주시는 은행, 이체일과 금액 그리고 영수증을 보내드릴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영수증 처리가 더욱 신속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SK Telecom(77)	고완주(3)	김군희(1)	김동석(2)	김동식(6)	故김승휘(500)
무명(3)	박영민(5)	송지연(4)	유형수(2)	윤혜진(4)	이근희(8)
이미화(2)	이미화(6)	이용석(3)	이진희(1)	최은영(1)	한춘미(4)

◆ 특별 후원금

4월	삼성SDS 푸른우리마을 봉사클럽	12,000,000		
6월	삼성전자	5,000,000	청담회	200,000
7월	이명현	100,000	신인석	500,000
			익명	57,500
			대구보건전문대	100,000
8월	정릉교회	6,000,000	임동진	500,000
			한소리교육단	400,000

◆ 후원물품

심우용 소형냉장고(1)	고완주 벽시계(1)	박종관 벽시계(1)
(주)아피아 아동용 티셔츠(50)	김진경 벽시계(1)	영진약품 인트라리피드(250ml 780)
마이클잭슨 캠코더(1)	TV(2)	VTR(2)
	에어콘(1)	보온밥솥(1)
		선풍기(1)
		카메라(1)
류수범 아버지 벽시계(3)	익명 복사기(1)	

◆ 물품 후원 안내

후원회는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후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후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제일생명의집 : 세제, 비누, 치약, 휴지, 고춧가루, 왕소금, 각종 조미료
아동용 교육비디오 및 도서

이번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 가을하는
Pharmacia & Upjohn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발행인/안효섭 발행처/백혈병어린이후원회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14-3번지 전화 : 766-7671~3 팩스 : 766-7674 제일생명의 집(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766-7671) 푸른우리마을(경기도 연천, 0355-834-9981)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012989-0019486(우체국) 7607451(은행지로) 예금주 : 백혈병어린이후원회